

을사늑약에 비분강개... 붓 대신 총 잡고 일제 맞서 게릴라전

천라도 1000年 인물 열전

<23>영광(下) = 의병장 후은 김용구

대한제국 광무(光武) 11년인 1907년 2년 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해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대한제국의 숨통을 더욱 옥죄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회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것을 빌미삼아 7월 20일에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킨다. 또 8월 1일에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린다. 이를 계기로 영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일어난다. '정미(丁未)의병'이다. 그 가운데 영광에서 거의(義城)한 후은(後隱) 김용구(1861-1918) 의병장이 대표적이다.

“그냥 죽느니 한 놈의 적이라도...”

학문 익힌 유학자 항일 무장투쟁 나서

호남의병장 연합체 도통령 맡아

영광읍·법성포·나주읍·영산포에서 활약

1918년 고종 승하 소식에 음독

대마면 화평리에 충·효·열 삼강문 세워져



의병장 후은 김용구 초상



영광군 대마면 화평리 수촌마을에 세워진 삼강문. 의병장 김용구와 아들 기봉 그리고 며느리 청송심씨를 기리고 있다.

◇1907년 호남창의회맹소 조직=“...마음 아프고 한스러워 잠자고 밥 먹는 것이 달지 않아 짐승처럼 사는 것이 차라리 사람으로서 죽느니만 같지 못하다 하여 여러 번 자살하려 했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이미 죽기로써 마음을 먹었으면 한 놈의 원수와 적이라도 죽이고 죽는 것이 한결 죽어서 유익함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후은 김용구 의병장은 '의소일기(義所日記)'에서 의병을 일으킨 까닭을 이렇게 밝혔다. 송사(松沙) 기우만(1846-1916)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을 익힌 유학자인 그가 택한 항일 방법은 무장 투쟁이었다. 손에 책이나 붓대신 총을 잡은 것이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후은은 이듬해 봄부터 국권을 되찾을 방법을 고심했다. 이때 성재(省齋) 기삼연(1851-1908)과 '적을 쳐서 나라를 회복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수개월간 서로 오가며 논의했다. 그리고 성재와 함께 대국 이순식 등 영광지역 지사들을 규합해 '일심계(一心契)'를 조직했다. 계원은 64명중 영광출신만 3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9명이 실제 의병으로 나섰다. 영광은 호남의병운동의 중심이었다.

1907년 9월 15일(음력 8월 8일)에 후은은 마침내 의병을 일으킨다. 이어 나을 뒤 영광읍을 습격하고 지리산으로 진군해 녹천고광순 의병진과 협력해 구례 연곡사에서 일제 토벌대와 전투를 벌였다. 그리고 후은을 비롯한 호남의병장들은 10월 30일(음력 9월 24일)에 기삼연을 중심으로 의병연합체인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를 조직했다. 기삼연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후은은 도통령(都統帥)을, 김준(金泰潤)이 선봉장을, 이철위(이진사)가 중군장을, 이남규가 후군장을, 대국 이순식이 감기(監器)를 각각 맡았다. 의병진 지도부는 영광(김용구·이순식·이철위)과 장성, 나주, 함평, 고창 출신 양반과 중인으로 구성됐다.

◇영광과 법성포 무대 유격전 펼쳐=의병진은 영광과 함평, 장성 등지를 무대로 본격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했다. 의병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다가 필요에 따라 협력체제로 전환했다. 주 공격대상은 영광읍내와 법성포, 나주 읍내와 영산포에 주둔한 일본 수비대와 경찰, 헌병대였다. 김용구와 이순식 의병진은 주로 영광읍과 법성포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펼쳤다. 나주 영산포와 함께 물류 중심지였던 법성포에 개항 이후 다른 곳보다 빠르게 일본경찰 주재소와 일본인 상점 등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로 농민이었던 의병들은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무기마저 열악했다. 그래서 후은과 대국 의병진은 대규모 공격 대신 20-100명 단위 소규모 정예대원으로 기습하는 게릴라전을 폈다.

“폭도(의병)들의 행동은 극히 교묘하여 백주에는 양민을 가장하고 공공연히 군정소제지를 배회하며 관서(官署)의 동정을 정찰하고 만약 기회를 잡으면 즉시 자객적 행동을 감행하여 총기, 탄약, 재화를 약탈하고 허를 틈타 저격, 내습을 하는 등 은현(隱現) 출몰을 미리 알 수가 없다.”(일본 '조선폭도 토벌지')



영국 '데일리 메일' 종군기자 프레드릭 맥켄지(1869-1931)가 1907년 강원도에서 촬영한 '정미의병' 그가 이듬해 출판한 '대한제국의 비극'에 수록됐다. <사진출처:위키미디어 커먼즈>

의병들이 사용하는 화승총 유효 사거리가 20보(12m)인 반면 일본군 38식 소총은 800m에 달했다. 의병들은 화승총을 노관식으로 개조한 '천보총'을 만들었고, 구식 납철환을 개량한 '철탄'(보통 철환)을 생산하기도 했다.

1908년 1월 13일, 외아들 기봉이 아버지 후은의 의병진에 합류하지만 사흘만에 흥덕 안치전투에서 전사하고 만다. 기삼연이 소식을 듣고 "동쪽으로 달리고 서쪽으로 나가다가 외아들이 죽었도다. 그러나 아버지는 충성을 위해 나가고 자식은 효도에 죽었으니 아버지의 충성됨과 자식의 효성됨이 천고에 짝이 없으리이다"라는 편지를 보내 위로했다.

후은은 대장 기삼연이 발부상을 당하자 1월 31일 지휘권을 인계받는다. 그러나 5월 16일(음력 4월 17일) 후은 역시 고창군 공음면 유동에 머물던 중 일본군의 습격을 받고 두발의 총상을 입었다. 후은은 상처가 악화되고 정신마저 혼미해지자 군 통수권을 포사장(砲臺將) 박도경에게 넘긴다. 박도경은 몸소 전차포를 둘러메고 대원들을 지휘해 '박 포대(砲臺)'라는 별칭으로 불린 인물이다.

이후 10여 년간 장성 백암산과 용화산 등지에서 은신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기회를 엿보던 후은은 1918년 1월 27일, 고종의 승하(1월 21일) 소식을 전해 듣고 비분강개해 음독 자결한다. 그의 나이 57세였다. 그는 당시 항일 구국운동의 실상을 전해주는 귀한 자료인 '의소일기'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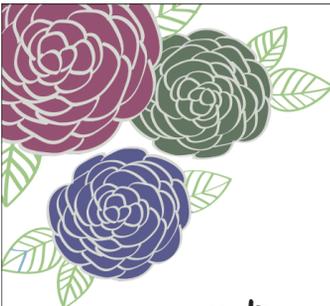
◇충과 효, 열(烈) 기리는 삼강문 고향에 세워져=영광군 대마면 화평리 수촌(하화) 마을은 후은이 태어나고, 묻혀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들어서면 삼강문(南山 金氏) 삼강문(三綱門)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삼강문은 충신과 효자, 열녀가 모두 배출된 집안(家門)임을 나타내는 정문(旌門)으로 후은 김용구, 아들 기봉과 며느리 청송 심씨를 기린다. 청송 심씨는 임진왜란 당시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심우신의 후손이다. 남편이 전사하자 시어머니(함양 박씨)와 함께 몰래 시신을 거둬 매장했으며, 시아버지 후은이 남긴 '신담록(의소일기)'을 간직해 후세에 전했다. 부자 묘소는 마을앞 야산에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김용구 의병장에게 건국훈장 국민장(1968년)을, 아들 기봉에게 건국훈장 애국장(1991년)을 추서했다

지난 2004년 삼강문앞에 세워진 '삼강각기(三綱各記)' 문구는 이렇다.

“자고로 어진 아버지는 어진 아들을 낳고 어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여 효를 다한다. 이는 물고기가 물없이 살 수 없듯이 사람은 삼강을 모르면 죽은 목숨과 같아는 만고의 이치를 뜻하는 바 아버지는 나라에 충(忠)함이고 아들은 부모에 효(孝)로써 도리를 다하며 며느리는 부모(婦道)로써 수절함이니 이분들의 삶이 바로 인간지도(人間之道)가 아니고 그 무엇이라...”

영광문화원은 2016년에 후은 김용구와 대국 이순식, 지은당 이사우 등 의병장의 일대기를 담은 '근현대 영광군 인물사-영광의 인물'을 펴냈다. 영광문화원 정택근 지역사 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후은은 기삼연과 더불어 한말 의병을 선도하는 인물”이라며 “국권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항쟁을 전개한 김용구 의병장의 항일 의병부대는 대한민국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 초석이 됐다”고 말했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영광=이종운 기자 jylee@kwangju.co.kr



계절의 보양식 삼계탕

시원한 여름 별미 물회

담백한 별미 민어회

과죽이는 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백과 함께 지켜온

※ 7월말 · 8월초 정상 영업합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